

한·미 FTA 우리에게 무엇인가?

WTO·FTA는 본질 아닌 친선 협력 형태를 가장한 현상일 뿐
모두 GDP신앙 함정에 머물러, 돈 보다 '소중한 가치' 지켜내야

그 래도 흑한을 넘기고 기어이 열매를 일
구어 낸 매실을 다 따고 고구마 순을
웁히고 나니 장대비가 쏟아진다. 비가와도 걱
정, 안와도 걱정, 근심 많은 동네가 우리 농촌
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경제성장
의 동력으로 설명하는 TV토론을 보고나서 이
글을 쓴다.

“저기 가는 저 노인 꼬부랑 노인, 늙기도 서
러운데 짐조차 지랴.”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한
창 서두르고 있는 한·미 FTA협상은 세상 근
심의 무거운 짐 다지고 허리 휘게 살아온 그 어
께(특히 농민과 서민) 위에 달갑지 않은 장맛비
를 몰며 무서운 족쇄를 지닌 거인처럼 뚝뚝
다가서고 있다.

지금 와서야 민족의 엄청난 수치로 여겨지지
만, 그때는 후진성의 근대화, 봉건채국의 개방
화, 우물 안 개구리의 세계화, 대세화로 미화되
었던 1910년 한·일 합방의 슬픈 역사를 생각
해 본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본질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미래 '땃' 막는 정치적 의지 필요

정부는 한·미 FTA를 체결하면 경제성장을
이 증가되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며, 물가하락
에다 양질의 서비스 향상 등 손해 될 것이 없는
성장보장성 협약이라한다. 예찬론 일색이다. 사
실 FTA의 시나리오와 드라마는 우리와 같은
경제적 입지를 가진 나라를 위해 마련된 세계
화의 퍼레이드가 결코 아닌데도 말이다.

또 새만금 간척사업은 갯벌의 못 생명들이
거덜 나고, 농업용수의 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
미래까지 바윗돌로 막아 버린 야만스런 탐욕공
사가 분명 한데도, 불확실한 농지확보의 경제
성과 미래는 묻어 버리고 과거의 비용만 강조
한 정부다.

현재적 물신의 국익론에 세련된 경제 관료들
은 고향을 지켜 어깨 빠지게 평생 농사지어 온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땅에 미군부대를 들어앉
히기 위해 굴착기로 못자리를 갈아 없애버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공무집행을 한다. 초전
박살 속전속결로 농민 항의를 진압하고 만족해

하는 관리들의 뒷 편에는 눈물을 삭히며 내 뺄는 허리 굽은 할아버지의 “느그들도 밥을 먹고 사냐!”는 말만 뼈가 되어 튀굴고 있다.

그 모든 힘없고 약한 것들, 쫓겨난 생명들, 흐느낀 것들을 이제 누가 지켜 주어야 할 것인가. 민주주의, 소외된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와 의식과 실천이 따로따로 곁들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인간에 대한 회의와 분노 그리고 외로움에 낙담이 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래도 민주화를 외치며 어두운 지하실에 갇혀 있을 때는 싸움질할 상대가 있어 지금처럼 울적하고 외롭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너무 극성스러워서 인지, 사회가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그런지 믿었던 정부마저 약자를 깔보고 강자의 경쟁력만 지켜가는 일들을 골라 나서고 있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 이럴 때 글 배운 자로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한·미 FTA 어떻게 볼 것인가를 질문할 때다. 지금 미국시각으로는 FTA를 돈으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엔 생명의 문제이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농업관련업이 제약산업 다음으로 이윤이 크게 남는 산업이다. 우리가 FTA를 가법게 볼 수 없는 까닭은 이윤에 굶주린 카길, 몬산토, 컨티넨탈 등 거대 기업들이 WTO와 FTA를 통하여 세계의 모든 것에 관한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것 때문이며 또 저들 기업들은 돈을 위해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저들의 손안에 우리와 우리 다음세대의 생명이 잡혀들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만 해도 전 세계 콩 생산량의 절반이, 옥수수 생산량의 3분의 1이 몬산토 카길 등의 유전자조작 곡물이다. 그것들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 제 1순위로 조달된다. 더욱이 한·미 FTA협정이 끝나면 유전자조작(GMO)식품이 판을 치게 될지도

모른다.

저들 다국적 가공식품기업에서 양산하고 있는 식품들은 우리의 밥상을 거의 점령하고 있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생

산 가공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사실은 쓰레기 가공식품을 탄생시키고 있다. FTA의 파도를 타고 더욱 기성을 부릴 그들의 농산물 가공식품은 종당에 우리 밥상을 완전 점령하게 될 것이고, 그 농산물 가공식품을 만든 사람은 절대 먹지 않는 합성착색료에 의해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이다. 그 함정에 우리는 자꾸만 말려들고 있다. 무서운 일은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까지 걸려들 수 있는 그 덫을 만드는데 우리들 중 성장론자들이 경제성장의 미명 속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그 함정을 파는 공범자는 안 된다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할 때이다.



권 광 식
조선대학교 석좌교수

FTA이득, 국민보다 재벌·관료

본래 자유무역의 논리적 근거이고, FTA 후견자인 비교우위론의 출생 뿌리는 포르투갈과 영국을 비교한 매우 특정한 낡은 정책모형(1821년)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가정(완전경쟁, 완전고용, 균형상태 등)에 근거한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이다. 또한 WTO나 FTA는 경제적 불안정을 증폭시키고 노동조건과 삶의 조건을 악화시킨 양극화의 주범이기도 하다. 진실은 이런 것인데도 FTA(자유화·민영화·규제완화 강요)가 경제적 편익을 창출한다고 힘 있는 자와 경제 관료

들이 원체 과상적으로 역설하는 통에 어느새 반박이 불가능한 진리로 판이 짜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알아 두어야 할 것은 WTO나 FTA 같은 자유무역기구의 유용성이나 경제편익성은 「연산가능 일반균형(CGE)이라는 모형에 의해 계산해 낸 화폐 수량적 이득을 근거로 한 주장인 것이다. 그런데 이 모형(CGE)은 이론적으로 결함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경제 편익에 비해서 양극화가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마틴 하트나 렌즈버그 교수 등 세계의 뜻있는 지성인들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경고는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한해의 사례를 보자, 한국 상장기업의 순이익금은 100% 증가 했으나 고용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상장기업은 66조원의 현금 보유를 했어도 국외로 빼돌리고 예금했다. 기업의 이윤과 성장이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지 못한 실증이다.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2000억불 이상)인데도 서민경제가 최악인 현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있는가.

한은의 발표에 의하면 기업층 가처분 소득증가율은 41% 급증했으나 가계부문 가처분 소득은 0.9% 증가했고, 나라 경제가 4.6% 증가했는데 기업은 41% 증가했고, 가계는 1%도 증가 못했으니 나라의 경제는 숫자상으로 부자되고, 국민의 삶은 더 팍팍 해진 것 아닌가. 한·미 FTA는 이런 모순의 극치 모델이 될 공산이 크다.

한·미 FTA협정이 발효되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높아진다고 하자. 그러나 화폐적 소득이 많아진다고 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는커녕 삶의 기본적 터전이 무너지게 되는 우려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뒤 3년 동안 매년 1조5억 이상의 차익을 챙겨 빼갔다. 계산해 보자. 투기 펀드 하나가 한해에 빼내기는 수익이 이 정도인데 FTA 협정으로 얻어진 소득효과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준단 말인지 답답하다. 한국경제의 수출의존도가 70%가 넘는 이 마당에서 자유무역은 곧 수출이며, 성장의 동력원으로써 개방만이 살길이요, 피해질 수 없는 대세라는 논리는 본질을 외면한 현상논리이다. FTA 반대로 쇠국하자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FTA는 시장이 국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신 식민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이것 아니고 무





엇이란 말인가. FTA로 이득을 보는 쪽은 국민이 아니라 재벌과 관료쪽이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광기어린 논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를 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후손에 나쁜 유산 주지 말아야

WTO, FTA는 무역의 깃발을 내세워 기업이익 획득 기회를 확대 강화 하겠다는 속심을 살짝 감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FTA는 원숭이 손오공을 연상시킨다. 서유기 소설의 원숭이 손오공은 자기 몸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손오공은 물고기, 새, 돌, 묘당 등 자유자재로 변한다. 그런데 손오공이 물고기로 변한 경우 그 물고기는 정말로 물고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물고기는 잠시 걸보기 속임수 일뿐 그 본질은 역시 원숭이 손오공이다. 지금 세계무대에서 미국은 가히 손오공 같은 기법과 위력을 가지고 세계를 채근하고 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한·미 FTA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현상과 본질에 관한 것이다. FTA는 꼭 손오공의 변화와 같지는 않을지라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현상과 본질을 가지고 있다. 현상과 본질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며, 어떤 경우엔 현상이 본질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본질은 경제 침략인데도 현상은 친선 협력 형태를 띠기도 한다.

손오공은 자신(본질)을 묘당(현상)으로 변화시키면서 꼬리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자 꼬리를 깃발로 변화시켜 묘당 뒤에 꽂아 놓는다. 비록 묘당으로 변화하기는 했지만 이 묘당은 진정한 묘당과는 어디가 달라도 다른 것이다. 본질은

반드시 현상을 통해서만 자신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현상뿐이며, 본질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만 쉽게 보고 본질을 보는 것에 실패하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미 FTA 협상이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조금 허물어 보려는 게임 정도로 보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무역장벽 안에는 우리와 우리 다음까지 지켜야 할 생명의 가치라 할까.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까지 도매금으로 함께 무너져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있는데, 자식세대의 설자리 뭇까지 훼손할 수는 없다. FTA를 바라보는 눈길에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 보따리 보다는 가치문제이고, 국민의식이며, 경제관료들의 기교가 아닌 정치적 의지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의 당면 문제를 풀려면 “우리 국민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가”라는 국민의식 변화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한다. GDP가 세계 10위, 외환보유액이 세계 4위인 경제부국이 삶의 질은 142개 국가 중에서 100위를 한참 넘지 못한 나라이고, 암 발생률이 세계 1위라면 어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우리가 좀 부자가 안 되더라도 우리 아이들 세대에게까지 나쁜 유산만은 넘겨주지 말아야 할 터인데 모두들 GDP 신앙의 함정에 빠져 들고 있다.

FTA는 우리를 신나게 하기는커녕 또 하나의 근심을 안겨주고 있다. 돈만 보다가 국민의식이 변질되고 소중한 가치가 무너지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빛나는 대한민국의 염원은 자꾸 멀어져만 갈 것이기 때문이다. Y